

광주 남구에 도시첨단산단 조성 본격화

LS산전, 600억 투자 ... 한전 연계 에너지밸리 탄력 기대 첨단실감콘텐츠클러스터 에타 통과 설계비 12억 반영도

새정치 장병완 의원 밝혀

광주의 미래산업지도를 바꿀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클러스터'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송암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국내 굴지의 에너지업체인 LS산전이 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나주혁신도시의 한국전력과 연계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시 남구 송암산업단지 일대에 조성될 첨단실감콘

텐츠 제작 클러스터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사업은 2016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1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송암산업단지 1만5000여평에는 총사업비 1013억원이 투입돼 홀로그램·모션캡처·증강현실 등 첨단실감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 사업과 연계 가능한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송암산업단지 인근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광주의 차세대 전략산업인 에너지 중심 도시 사업을 위한 전기연구원 광주 분원 설

립이 이미 확정돼 추진중이다.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과 연계한 에너지밸리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국내 에너지분야 최대기업 LS그룹의 계열사인 LS산전이 이곳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첨단실감콘텐츠 사업은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콘텐츠진흥원 등 기관과 시너지를 내고 첨단영상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인재 고용 창출 등 광주 미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지난달 개최한 광주미래발전 전략토론회에선 이들 대형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3조5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이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첨단문화콘텐츠·자동차 등 광주

의 차세대 핵심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 광주는 소규모 제조업과 영세상공업 중심의 소비중심 도시구조였다. 하지만 이번에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광주는 열약한 소비형 도시구조에서 첨단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국책사업은 남구 뿐만 아니라 광주는 물론 전남지역 미래경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장병완 의원은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근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이번 국책사업을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문화콘텐츠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미래 산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광주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시티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지역사회복지' 평가 대상 수상

맞춤형 출산정책 등 성과

전남도가 보건복지부 '2014년 지역사회복지' 평가에서 저출산·고령화 맞춤형 복지계획을 추진한 공로로 대상상을 차지했다.

지역사회복지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남도 지역사회복지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취약한 복지 여건과 전국 최저 수준의 재정 여건에도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8개 부문 19개 사업을 계획 대로 성실하게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으로 지난 해부터 계획해 올 9월 해남에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남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2007년부터 8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확대로 3년 연속 정부 평가에서 대상상을 수상한 성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회춘(回春) 공중목욕장 운영 등도 이번 수상에 밑바탕이 됐다.

대상을 수상한 전남도는 오는 22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대상 수상과 포상금 2000만원을 받는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은정 있는 도민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전남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경관계획 의견 수렴

전남도, 오늘 공청회

전남도는 15일 "전남의 현재 및 미래 경관을 집대성한 전남도기본경관계획 초안을 확정해 16일 오후 2시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동포럼 등 각종 보고회, 전문가 자문 및 시·군 업무담당과의 실무적 워크숍 등을 개최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계획 수립 방법과는 차별성을 두고 계획 초기부터 마스터플랜을 지정해 학계와 업계가 동시에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기본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정감 있고 문화가 깃든 남도경관'으로 설정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악경관의 보전 관리, 섬과 하천 및 해안경관의 보전·관리 및 활용, 역사문화경관자원 최대한 존중, 쾌적하면서 개성 있는 생활기반 조성, 권역별 지역 환경의 특성이 표출되는 지역 이미지 창출, 불량 경관의 제거 또는 재생, 경관상업기획단 신설·운영 등을 7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경관권역은 당초 산악권, 전원권, 해안권에서 이번에 내륙경관권역(시가지화구역, 전야구역, 비시가지구역), 해안경관권역(해안선을 기준으로 내륙구간과 바다구간으로 구성), 섬 경관권역(인근 해역까지 권역으로 설정) 등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재구성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남북에너지 협력사업 토론회

15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문상필 시의원의 사회로 '광주광역시 남북 에너지 협력사업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지표 현실화해야"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

"교부율 25%로 올려야"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지표를 현실화하고 교부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의원은 15일 "광주시는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12개 측정항목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단위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의 변화

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특·광역시 경우 '인구수와 면적', '학생 수와 학교 수' 등으로 세분화시켜 다양한 측정단위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광주시는 면적, 인구수 등 단순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산정지표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또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이 필수적이기에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증당도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행 23%인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을 2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산정지표에 대한 행정부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표개발 및 보완 등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부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이지만,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3%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도 세입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교부율 산정을 위해 자치구의 정확한 재정진단과 교부금 산정지표의 개발·보완이 선행된 후 자치구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중 FTA 발효 앞두고 전남농업 해법 마련 세미나

20일 농기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전남 농업의 미래 과제를 발굴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 국제회의장에서 2015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주최로 'FTA와 전남농업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세계 농업의 변화를 직시하고 전남 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2015국제농업박람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한·중·일·베트남 등의 교수, FTA 관련

고위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정섭 목포대 교수가 'FTA시대 전남농업 발전전략', 중국농업대학 첸펑푸 교수가 '중국의 FTA 추진현황과 농업발전 전략', 남양주대학 강경우 교수가 '일본의 FTA 추진현황과 농업구조 개혁', 베트남 상무부 데안하이 부국장이 '한·베트남 FTA 체결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 등의 주제로 발표한다. 또 중국농업대학 무우잉 교수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중 농산물 무역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연구위원이 'FTA 발효에 따른 전남 농업영향 분석 및 경쟁력 제고 전략',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2015국제농업박람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한·중·일·베트남 등의 교수, FTA 관련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중 저장성 해양·수산교류 탄력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전남도는 14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 대학교가 '해양·수산분야 공동 연구 대학교가 '해양·수산분야 공동 연구 개발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남과 저장성의 해양·수산분야 교류협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15 국제 섬 관광대회' 참석을 위해 중국 저장성을 방문한 우기중 전남

도 정부부처가 이날 닝보대를 방문해 두 기관 간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학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닝보대는 해양과학과 수산분야에서 중국 내 3위권, 저장성 내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